

안녕하세요,

2020년 신년 첫 인사 드립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을 시작하며 벤처 1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작년에 이어 벤처 2년을 시작합니다.

사실 작년 경영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여러분께 '벤처 1년'이라 강조했던 것은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전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쉽지 않는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고민하고 유کم패니온만의 경쟁력과 차별점이 매우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에서야 우리 회사의 민낯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프로젝트, 지금도 진행이 더디고 힘든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회사는 구성원 개인 실력과 회사의 역량을 다시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선입견, 평가에 대하여 겸허히 귀를 열고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업에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함께 한 고객사에 우리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서비스하고 있는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지식과 전문역량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고객사에 전문가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조금은 미흡했을 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자신에게 전문가인가? 질문해야 하고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사업을 지원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사업 서비스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 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더 불어 우리 회사에서 내세울 수 있는 전문 지식이 있는지 냉철하게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개인만의 행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사는 직원들을 위해 리플레쉬 휴가, 스마트데이, 휴게 시간 등 다양한 복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처음 만들 때 직원들의 노고를 이해하고,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효율성 있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작은 시간도 낭비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반면,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제도들이 본질이 흐려져 취지를 잃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복지를 사용할 때 단순히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아니라 직원을 위해 회사가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역시 회사가 배려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의무를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려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회사'는 회사만 노력한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원 한 명 한 명이 함께 동참해야지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행복하고, 직원도 행복하고, 함께하는 고객 역시 행복해야지만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누군가는 불행해 지는 것이 이치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게 진짜 아는 것이다.

올해는 고객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감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회사의 장점이 무엇이며, 어떻게 부각시킬지 함께 고민하여 단점을 제거하고 성장하는 유کم패니온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회사라는 것은 인격이 없습니다.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것이 회사라는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의 장점이 회사의 장점이고, 개인의 단점이 회사의 단점입니다.

2020년 우리가 전문집단으로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할까 깊이 고민하는 한 해로 삼고, 성장하길 바랍니다. 2020년 모두가 더할 나위 없는 한 해로 만족스러운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유کم패니온의 소중한 구성원들께

한수진 드림